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의 역할

백봉자

(전 경희대학교 교수)

1.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

1) 재외 동포 학습자에게 한국어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재외동포에게 한국어 교육의 의미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주와 정착 과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재외동포들은 타민족과 경쟁하면서 민족의 얼을 지키느라 애써왔다. 자녀에게 말과 글을 가르치느라고 헌신하였다.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부모들의 열정이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을 오늘 이만큼 발전하게 한 것이다.

과거에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민족 얼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루어졌고 나아가서는 이중 언어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를 익힌다는 의미로, 또는 현지에 적응하면서 모국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인의 생각이 바뀔에 따라 우리 재외동포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국가 간 민족 간, 또는 문화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외국어의 습득이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민자에게 그들의 모국어를 제대로 습득해서 활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외동포들에게 자극이 되었고 한국어 교육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되었다.

게다가 근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외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어 능력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계로 뻗어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세계 문화와 조화를 시도하는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대학의 진학, 취업, 그리고 어쩌면 재외동포 자신들이 가진 이상을 실현하고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었다.

2) 재외동포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은 재외동포의 수가 급증하고 동포 2세가 정체성을 인식할 정도의 연령이 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한국어는 이중 언어 학습자만이 가진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동포 학습자는 외국인 학습자와 달리 문자언어 영역인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말하기가 지나치게 구어체이고 문법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어 능력 향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재외동포 학습자의 이런 특이 현상은 줄어들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네 영역이 고루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또 교육자의 전문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동포의 해외 거주 기간이 이제는 3세를 넘어서는 시기가 되어서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과 같은 조건을 가진 학습자가 많아지고 있고, 외국인 가정에서 자란 입양아 집단과 국제결혼을 한 동포의 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를 분류하여 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의 경우, 학습자의 분류는 대체로 연령대 별로 해야 한다. 언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고국에 대한 이해와 자아에 대한 의식이 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습자 요인이 이렇게 다양화 되어 각각의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학습자 별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학습자 구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초등학교 (한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 한국어 학습자 양성 한국적 사고를 가진(/이해하는) 바른 한국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일상 문화 한국의 전통 민족 교육
중·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과 고급의 연계 실현 고급 한국어 학습자 양성 한국학, 또는 전문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입학시험 대비 특수목적 한국어 전문 영역
대학교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 주재국 간의 가교 역할 (한국) 대학에 진학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화 교육의 심화 읽기 자료의 확대 글쓰기 교육의 강화 고급스런 표현능력 배양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자는 한글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일 것이다. 어린이 학습자의 교육 목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기초가 단단한 초급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는 당당한 현지인이 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바른 한국인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는 일반 한국어와 함께 한국의 현대 일상 문화와 민족 교육을 중심 내용으로 해야 한다.

어린이 한국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1) 어린이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주의가 산만한 특성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집중하지 않는다. 잠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린이를 자리에 앉혀 놓고 한국어를 교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재미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어린이의 심리이다. 또 어린이에게는 무엇을 하는 가운데 재미를 발견하거나 재미를 만들어 내는 능력도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다양성을 최선으로 삼는 서양 문화권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경직되고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문화와 정서를 어떻게 융통성 있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학습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의 말을 듣고 외우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스스로가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그리고 칠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단지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만 할 뿐이다.

(3) 어린이의 지적 수준을 자극하여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능력 있는 젊은 학습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다. 어린이들의 능력은 키워 줄수록 더욱 잠재 능력을 발휘한다. 수준보다 약간 높은 질문이나 사고의 유도는 오히려 발전의 자극제가 되고 신나는 수업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어린이들은 사물을 보고는 상상하고 환상에 젖는 특성이 있다. 또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다. 이러한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만드는 길이기도 한다.

(4) 과제 수행 중심이 되어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가 실제적이고 실용성이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언어적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러므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익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어야 한다.

(5) 어린이에게 유의미한 내용이어야 한다.

담화와 문장의 내용이 맥락 속에서 어린이에게 유의미하여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능한 한 주제는 현지 생활과 연관이 있는 사물이어야 한다.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의미한 것이 된다.

(6)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는 성인 학습자와는 달리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대개 초급 단계에 있고, 알고 있는 어휘의 수나 문법적 지식도 거의 없다. 하지만 어린이가 관심을 가진 주제와 관련된 어휘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어린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적은 수의 어휘만으로도 창의적인 의사 표현을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기회를 만들어 준다.

(7) 한글학교에서 받은 한국어 교육이 훗날 언제인가는 큰 열매를 안겨주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 연결되어 가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어휘와 문법 교육이 등급 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 내용에는 등급 별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한글학교 교육이 의미 있는 교육이 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습자가 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글학교에서 배운 기초가 활용되어야 하고, 어휘나 문법 같은 언어적인 지식과 함께 정치, 경제, 시사 문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학, 예술과 같은 문화 면으로 확대되고 심화 되어야 한다. 미국의 SATⅡ와 같은 대학 입학시험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학의 수학 능력을 위해 읽기와 글쓰기에 전문성을 길러 준다. 특히 유학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절실하다.

대학생과 성인 교육에서는 취업, 취미 활동 등에 연계를 지어줌으로써 한국어가 그들에게 인생의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게 한다. 한국 기업체나 한국과 연계된 다국적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목표를 정한 학습자에게는 그에 맞는 맞춤교육도 필요하다. 많이 읽고 요약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글로 쓰는 형식의 읽기, 말하기, 쓰기의 통합 교수법에 주력한다. 또 자기의 전문 영역을 한국과 연계해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유도한다. 한국어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를 보여준다.

2.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

1) 언어 자질의 구현과 문법 교육

(1) 언어 자질의 구현

언어 교육에서 볼 때 언어의 구성은 ①구조적 양상인 형식(문법의 요소)과 ②기능적 양상인 담화, 그리고 ③사회 문화 양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언어 실현 단계에서 이들을 종합하게 되고 여기에 화자의 ④경험적 양상이 더해져서 표현으로 나타난다(H. H. Stern:1983:246-268).

① 언어의 기초 단위가 되는 형식적 양상은 언어 구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설명과 연습이 비교적 간단하다. 언어 자체를 분석적 입장을 취해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담화도 사회 문화 자질이 포함되지 않은 기능 중심의 언어로 보았을 때 언어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틀에서 보는 것보다는 복잡하겠지만 여전히 큰 문제는 없다. ③ 언어로 표현되어 구체화 된 것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 문화 양상인데 이 경우도 사회 문화를 언어 자질과 분리하여 설명하고 교육한다면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④ 언어를 가지고 화자가 자기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해서 표현하는 경험적 양상도 이것을 따로 떼어 놓고 다룬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즉 이 네 가지 언어의 자질을 각각 다룬다는 것은 교수-학습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언어의 실현이 이들을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 단계에서 이러한 양상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교육 과정에 넣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언어 수행 단계에 이르면 여러 요소의 결합은 더욱 견고해져서 분석적 접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교육자의 과제가 된다.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째 과제는 이론 문법과 구별된 교육문법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문법(Pedagogical grammar)은 교육을 위한 문법(grammar for pedagogues)으로서 외국어를 교수-학습할 목적으로 목표어 문법을 형식화한 것이다(S. Chalker:2000).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언어의 현상과 실제 사용 예를 중심으로 유추하고 이것을 다시 형식화한 것이 교육문법이다.

교육문법은 ①개별 언어의 특이정보보다는 언어의 보편성과 실용성(practical)을 중요시한다. ②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문법 요소 간의 연관성, 상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③ 목표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 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실용 문장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④교육 현장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서 문법을 선택적으로 다룬다. ⑤그리고 언어 외적인 상황과 관련을 지어 이해한다.

교육의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분석적 입장을 취하거나 종합적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저급에서는 언어 내적 요소만을 다루는 분석적 입장으로 접근하다가 이를 종합해서 총체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고급으로 가면서 종합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해한다. 그리고는 다시 이를 심화하기 위해서 분석적으로 보아야 한다. <분석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입장에서 분석적으로>를 반복하면서 접근한다는 의미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연습 단계-활용연습 단계-의사소통연습 단계>로 나누고 있다.

<연습 단계>에서는 언어 구조에 역점을 두어 반복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활용연습 단계>로 가면서 담화 교육을 심화한다. 담화에는 사회 문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사회 문화 교육을 한다. <연습 단계>에서 <활용연습 단계>, <의사소통연습 단계>로 옮겨 가면서 사회 문화 교육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것은 초기의 <분석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점차 <종합적인 입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학습자 오류가 나올 수 있고 미비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분석적 입장>으로 돌아간다.

<의사소통연습 단계>인 실제 언어 사용 단계는 언어적 자질과 사회 문화적 자질 그리고 학습자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오류가 아니더라도 분석적인 입장에서 각 요소가 전체 맥락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학습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학습자가 담화의 맥락 상황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언어 교수의 기본 방향은 분석에서 종합으로, 종합에서 분석으로 반복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연습 단계-활용연습 단계-의사소통연습 단계>는 한마디로 연습 단계다. 연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참여가 피동적 단계일 때 이들을 격려하는 기법, 능동적인 단계일 때 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법이 여기에 속한다.
- ② 활용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 현장과 같은 여건을 만들어서 배운 문법과 문형, 담화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연습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한 후에는 실제 사회에 나가 모국어

화자와 직접 부딪쳐 과제를 해결한다. 이때 교수요목은 잘 짜인 것이어야 한다.

- ③ 실제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연습으로 습득한 여러 양상들의 통합체를 자기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제대로 된 한국어로 실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모국어 화자라고 할 지라도 모두가 같은 언어 실현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어서 개인적인 능력이 작용한다. 즉 언어의 실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복이나 모방과 같은 훈련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 자신의 스키마를 활용하는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습자는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스키마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교수자의 과제다.

(2) 문법의 설명

언어 교육에서 문법의 중요도는 교수법에 따라 달라져왔다. 근래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교수법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 문법 교육은 교육의 전체인 양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교사는 많은 노력을 여기에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실력을 보면 문법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외국인 학습자는 문법 자체를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재외동포 학습자의 경우는 문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의사소통을 중시한다고 담화의 기본이 되는 문장 구성력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언어를 숙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을 꼽는데 이것은 언어를 숙달하는 데 여러 요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능력 향상, 그 중에서도 문법적 능력의 향상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한 수업 형태를 거쳐야 숙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은 언어 기능 별로 문법적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문법은 이해 교육에 비해 표현 교육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말하기에서 요구하는 문장과 담화의 구성력, 그리고 문법의 정확성은 말하기 능력의 전체에 해당한다. 말하기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문법 설명 단계는 학습자가 문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법을 설명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문법 설명은 정확해야 한다. 즉 한국어 전통 이론 문법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문법이 전체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교수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② 문법 설명은 간결해야 한다. 학습자의 이해와 생산을 도울 수 있도록 요점식으로 간단

한 설명 방식을 택한다. 전문용어 사용은 학습자의 판단을 오히려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피한다.

- ③ 예문은 간결해서 문법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실용적인 문장이어야 한다. 어휘는 학습자 수준에서 부담이 없는 것을 사용하며, 내용은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택한다.
- ④ 문법 항목의 성질에 따라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절충식 방법으로 접근하여 효과를 꾀한다.
- ⑤ 가급적 규칙과 제약을 주어 오류를 막는다.
- ⑥ 유사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면서 상이점을 밝힌다. 유사 문법과 구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으며 상이점은 무엇인지 예문으로 보이면서 한국어 문법의 난해한 문제를 풀어준다(백봉자:2001).

(3) 담화와 교수 과정

의사소통을 하는 데 기본 단위는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장은 담화 맥락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담화는 문장의 집합이다. 그러면서 응집력이 있다.

보통 담화의 맥락은 배경 텍스트로서의 맥락, 배경 상황으로서의 맥락, 문화적 맥락으로 나눈다. 배경 텍스트로서의 맥락은 개별적인 언어 항목으로 의미를 제공하는 언어적인 면의 맥락을 말한다. 배경 상황으로서의 맥락은 화자와 그밖에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관계뿐만 아니라 음성 메시지일 때는 음성의 고조, 글일 때는 글의 형식 등 담화의 배경 상황 맥락을 제공하는데 이는 화용적 배경을 의미한다. 문화적 맥락은 목표언어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 사회문화 공동체의 합의점을 제공한다. 그러기 때문에 담화에는 표면적 의미 외에 맥락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장 단위의 의미를 뛰어넘는 담화 단위의 해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화에 있어서 맥락의 적절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 개별 문장을 만들 때는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좀 긴 이야기를 만들면 어색한 경우를 본다. 맥락 문제로 앞뒤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맥락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맥락의 적절성이 향상되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형태 지식에 기초한 화용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발화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㉞ 미경: 아줌마, 이 생선 어떻게 해요?

이 문장을 보면 생선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디로 옮기느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 미경: 아줌마, 이 생선 어떻게 해요?

상인: 한 마리에 오천 원이에요.

라고 하면 그 의미는 명확해져서 “어떻게 해요?”의 뜻이 “얼마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탈맥락화 하는 어휘와 문법은 그 의미를 잃게 되어 담화 또한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인데도 맥락화 되어 있지 않아 서로를 얼떨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문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장 단위로 교육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문장 단위가 되었을 때 정확성을 기하기가 더 어렵다. 이는 탈맥락화 되었을 때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를 하는 시험 문제에 이러한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다음은 한국어 시험에서 자주 쓰이는 유형의 문제 예다.

㉡ 제 이름() 김영수입니다.

㉢ 책을 읽고 _____.

㉣ 구름이 많은 것을 보니까 _____ -(으)르 것 같아요.

㉤ 구름이 많은 것을 보니까 _____ -(으)르 모양입니다.

㉡는 조사 “-은/는”이나 “-이/가”의 구별 능력을 보려는 것인가 본데 여기에는 “-은/는”과 “-이/가” 모두 가능하다. 이 문장만으로는 그 구별을 할 수 없다. ㉢는 “책을 읽고 있어요.”(동작의 진행),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겠어요.”(순차 나열), “책을 읽고 빨래를 하고 잤어요.”(공간 나열)로 답을 쓸 수 있다. ㉣와 ㉤은 “구름이 많은 것을 보니까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나 “구름이 많은 것을 보니까 소나기가 올 모양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유사 문법 요소인 “-(으)르 것 같다”와 “-(으)르 모양이다”를 구별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담화 상황에서 출제가 되어야 명확한 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장 단위가 아닌 담화 단위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 1) 어휘, 문법, 또는 문장이 중의적(重義的)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의미가 분명하다.
- 2) 담화의 맥락적 상황이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 3) 문법 요소의 의미가 분명하여 유사 문법 요소와의 대조가 가능하다.
- 4) 어휘에서 덩어리로 표현되는 연어나 관용 표현, 문법에서 덩어리로 표현되는 문형(sentence pattern)이나 상황에 따라 표현되는 말들을 교육하기가 용이하다.
- 5) 문장 내의 문법 요소로는 풀 수 없는 사회 문화적 정서가 담긴 내용을 이해시키기 쉽다. 예를 들면, 인사말인, “어디 가세요?” “저기요.”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2) 교수 기법

언어 교수 현장에서 보면 교수 내용의 중요성 못지않게 수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교수법을 포함한 교수 기법이다. 아무리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교수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수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언어 교실에서는 학습자의 감성을 잡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이며 교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skills, techniques)이다.

말하기 교수에서는 교수 과정 별로 적절한 기법이 필요하다.

- (1) 내용 이해를 위한 도입 기법: 도입을 위해서는 그림이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듣기 자료가 동원되는데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다룰 언어적 과제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 (2) 제시 기법: 흔히 대화체로 되어 있는 본문 제시는 교사가 읽어 주거나 녹음된 이야기를 듣게 하는데 이 경우에 내용을 익히도록 반복해서 읽거나 외우게 한다. 이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발음을 수정하는 기회를 갖는다.
- (3) 어휘, 문법 설명 기법: 어휘는 내용을 짜는 최소 단위이고 문법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 또는 틀이다. 한국어 문법에서 이 요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간단한 한국어로, 또는 학습자의 언어로 하되, 문법 용어의 사용은 삼가고 학습자의 수준을 판단하여 설명한다. 여기에는 문법적 지식과 함께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 기법이 필요하다.
- (4) 연습 유형의 선택과 균형 있는 연습: 문법 요소와 문형에 따라 연습 유형은 달라진다. 대체로 교사 주도성이 높은 교체연습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연습 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한다.
- (5) 학습자 이해 · 표현 감지 능력: 학습자에게서 나오는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학습자의 눈빛만 보아도 그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학습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도 교사는 그것을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모든 교수 행위를 학습자 중심으로 하는 데서 비롯된다.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 학습자 개인의 성향, 요구를 분석하고 연구하면 학습자를 대하는 기법과 감지 능력이 배양된다.
- (6)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준비, 조직, 시행 능력: 이것은 연습과 활용 단계에서 학습자 간의 짝 활동, 그룹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교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학습자간의 활동을 통하여 수업이 운영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불안한 일이다. 교사는 배후에서 지휘와 조언을 기술적으로 한다.
- (7) 학습자 오류 인식과 치유 능력: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

지만 그 오류의 상태가 모호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많다. 오류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8) 평가와 조언 기법: 학생은 늘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다. 학습자가 신나게 자기 얘기를 끌고 가는 경우, 언제 그 말을 끊고 오류를 지적해야 하는가는 교사들의 고민이다. 학습자의 기를 꺾지 않으면서 교사가 목적하는 바,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일까?

(9)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기법: 언어 교사가 학습자에게 있어서 편안한 말 상대일 때 학습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교사도 개성을 가진 인간이니만큼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 계발을 위해 기법을 배운다면 한결 쉽게 대상에 따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교실 분위기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조성한다.

- 그리고 학습자 심리에 부합하는 원만한 대화 능력을 갖춘다. 친구 같은 분위기, 언니나 형 같은 분위기라서 무엇이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아니면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위기라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3. 한국어 세계화와 한국어 교육자

1) 한국어 교육자의 특징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을 한국인, 재외 동포 2, 3세, 외국인으로 나누고 이들 중 한국어 교육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인 교사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한국적인 인생 경험을 했고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 문화와 한국적인 교육 방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보수적이고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폐쇄적이다. 거기에 사는 한국인들은 사회 규범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과 역사에 비중을 둔다. 그리고 그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융통성 있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이들은 교사 중심 체계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동적이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

한국어 교사들은 학력이 높고 질적으로 우수하며 능력이 있다. 사고의 전환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주어진 일을 잘 소화하는 능력도 있고 인내심과 지구력이 있다.

한국어 교육에 임하는 한국어 교사에게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다. 한국인 교사에게는 한국 역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남다른 애국

심이 있다. 얼마 전까지 세계인에게서 외면당해 왔던 한국어가 세계 보급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자 이 애국심이 나타난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주면서 학습자가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기를 빌고 소위 친한파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2) 한국어 교육자의 자질

세계에 한국어를 전파한다는 엄청난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생각해 본다.

- (1) 한국어 교사는 보편적인 한국인, 그러면서 모범적인 한국어이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한국인이 지닌 가치관에 대한 관심으로 배양된다.
- (2)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좋은 자질의 사람이어야 한다. 말과 행동에서 열린 자세로 이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보급하려는 목적에 앞서 상호교류의 자세가 필요하다.
- (3)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려는 자세, 연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 (4)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인내라는 말을 흔히 한다. 언어 교육에서 이 사랑과 인내는 그 어느 과목에서보다도 요구되고 강조되는 원리와의 같은 것이다. 학습자의 내면의 생각을 말로 이끌어 내어 생소한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다.
- (5) 한국말과 한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 (6) 교사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한다. 교사가 주관자가 되어 수업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수업이 진행될 때 오히려 교사는 할 일이 없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의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오류를 보충해 주고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지의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는 어둡고 긴 굴을 통과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선다. 어떻게 하면 손을 잡아 주지 않아도 혼자서 그 굴을 통과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해야 한다. 학습자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도와주는 손길, 거기에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기법이 필요하다.

이해 교육에서는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나 스키마가 없는 학생에게 스키마를 생성되도록 한다. 또 학습자가 의도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학습자의 의도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등은 돕는 이로서 해야 할 일이다.

지휘자가 관현악에서 모든 악기가 조화로운 음률을 낼 수 있도록 지휘하듯이 교사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질이 필요하다. 교과 과정상의 지휘는 물론, 의욕 없고 소극적인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수업 분위기가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한국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교수 능력

국어 기본법에서 말하는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지식은 1)한국어 영역, 2)언어 영역, 3)한국어 교수법, 4)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 (1) 한국어에 대한 지식: 한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형태), 담화에 대한 전통 국어 이론 지식과 여기에 언어 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문법을 알아야 한다.
- (2)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학, 미술, 음악에 대한 지식, 시사문제, 인기 가요, 영화, 연극, 유명 연예인 등 현대 한국 사회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또 한국의 사회, 문화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 (3) 구어와 문어에 대한 능력: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중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다. 적절한 어휘의 사용 능력, 표준 발음과 억양으로 학생의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구성력과 함께 바른 한글 자모 쓰기도 중요하다.
- (4) 외국어 능력: 한국어 교사는 하나의 외국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와 지역 문화를 알면 곧 그것은 특화된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한 지역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계에도 큰 보탬이 되는 일이다. 또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아 학습자가 한국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학습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4) 최상의 교수법을 향한 끊임없는 경주(傾注)

언어 교수 이론은 언어를 보는 시각과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등장한다. 선행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 것이 등장하고, 또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혀 반대 이론을 가진 새 교수법이 등장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수법이 한 쪽 이념에 치우친 것이어서 선뜻 하나만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각구두 교수법은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

어서 인간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의식과 습관만을 중시한다든지, 의사소통 교수법은 그 반대로 언어의 형식과 기능을 무시하여 언어 표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정확성에 관심을 안 기울인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교수법이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해도 그것은 이론일 뿐이다. 이것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교사가 교수법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내용을 교수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다양하다. 교실에서 교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지각 형성 과정과 결과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교육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학습자의 과거 모국어 습득 경험과 모국어 사회에서의 배경 지식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핀다. 학습자가 교사와 동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치르고 학습자 개개인과 관계를 무리 없이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 또한 중요하다.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 조절 역시 부드러우면서도 다분히 외교적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교수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수를 한다.

교사의 이러한 종합적인 행위는 이론이나 규칙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창조 행위이며 이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량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어서 무한하다. 좋은 교수법이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원리는 정해져 있으나 학습자 개인과의 교감, 그리고 학습자 전체와의 교류가 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서로의 느낌이 전해질 때 수업의 성과는 나타난다.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때 교실 분위기는 고조되고 교사는 신이 나서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이다.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들만의 교수법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최상의 교수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 개인의 전인적 교수 행위와 전문가적인 노력에 기초할 때만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최상의 교수-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교수법이 되는 것이다. 교수법이 되는 것이다.

4. 마무리

21세기에 한국어 교육을 책임질 한국어 교육자,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각오가 필요할까? 위에서 말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

- 1) 국어학 이론은 물론 언어학, 한국어 교수법, 한국학 등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는다.
- 2) 이론에 바탕을 둔 실제에 주력한다.
- 3) 수업 참관, 모의 수업, 세미나 등으로 경험 쌓기에 노력한다.
- 4) 문제는 내놓고 토론하고, 연구하여 해결한다.
- 5)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6)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으로 자기를 특화한다.
- 7)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와 문화에 능통하여 전문성을 기른다.
- 8)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활용하여 그 시간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능력을 발휘한다.
- 9) 예술이라고 하는 최상의 교수법, 나만의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환상적인 기분을 맛볼 수 있게 한다.

<참고 문헌>

-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34호, 이중언어학회.
- 김정렬(2001), 영어과 교수-학습 방법론, 한국문화사.
- 김중섭(2008),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노마 히데키 (2002), "한국어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민현식(2003), "한국어 교사론", 한국어 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동호(2007),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교육 내용 연구 구축 방안, 이중언어학 34호, 이중언어학회.
- 방성원(2004), 한국어 문법화 형태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백봉자(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 현재와 미래 (기조 강연),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백봉자(2006a), "21세기를 여는 한국어 교육자 교육," 배제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
- 백봉자(2006b),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白峰子(2006c), "談話 狀況을 考慮한 韓國語 文法 教育", 朝鮮學報 202輯, 日本 朝鮮學會.
- 백봉자(2010a), "한국어 문법 교육의 새로운 방향"(기조 강연), 제 20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백봉자(2010b), "세계 속의 한국어 교원", 2010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자료집,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 백봉자(2010c), "한국어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의 범주(範疇)", 韓日言語學者大會 발표집, 일본 麗澤大學.
- 우형식(2009), *규칙으로서의 문법과 사용으로서의 문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 조항록(2010),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문화사.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Addison Wesley Longman.
- Chalker, Sylvia(2000), "Pedagogical Grammar: Principles and Problems", in M. Bygate et al. ed.,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3rd ed., Longman.
- Leech, Geoffrey(2000), "Students' Grammar - Teachers' Grammar - Learners' Grammar", in M. Bygate et al. ed.,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3rd ed., Longman.
- Parrott, Martin(1995), *Tasks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2000), *Beyond Trai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n, Michael(2000), "Design Criteria for Pedagogic Language Rules", in M. Bygate et al. ed.,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3rd ed., Longman.
- Stern, H. H.(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심영택 외 옮김, 언어 교수의 기본 개념, 하우, 2006).
- Thornbury, Scott(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Tonkyn, Alan(2000), "Introduction: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in M. Bygate et al. ed.,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3rd ed., Longman.
- Wallace, Michael J.(1993), *Training Foreign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7.